



한덕수 국무총리, 카메룬 공식 방문(10.31~11.1)

- △카메룬 대통령 면담 △한-카메룬 총리회담 △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
- 중부아프리카 핵심협력국인 카메룬과 ICT(전자정부)·개발협력(농업, 보건의료)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프리카 순방 3개국(말라위·토고·카메룬, 10.30~11.1) 순방의 마지막 국가로 카메룬을 10.31(화)~11.1(수)간 공식 방문했다.
 - 대한민국 총리로서 1961년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 계기 한 총리는 「폴 비야(Paul Biya)」 대통령과 「조셉 디옹 은구트(Joseph Dion Ngute)」 총리와 면담하고, 카메룬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.
- 한 총리는 11.1(수) 오후 비야 카메룬 대통령과 면담하고, 양국간 분야별 협력,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.
 - 한 총리는 전자정부, 농업, 보건 등 분야별 협력을 통해 카메룬이 2035년 신흥공업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설정, 추진중인 ‘비전 2035*’ 이행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,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.
 - * 2035년 신흥공업국 진입 경제발전 전략 / 빈곤해소·경제산업화·민주주의·사회통합 등 분야별 세부목표 설정
 - 또한, 한 총리는 ‘글로벌 중추국가’ 비전 아래 아프리카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설명하면서, 「2030 부산세계박람회」와 「2024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」에 대한 비야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하였다.

- 비야 대통령은 그간의 양국 실질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, 광물자원, 농업, 보건,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.
 - 한편,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되는 핵·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,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카메룬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.
- 이에 앞서, 한 총리는 디옹 은구트 카메룬 총리와 회담 및 오찬을 개최하여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고,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, 국제무대에서의 협력,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.
- 한 총리는 우리의 중부아프리카 핵심 협력국인 카메룬이 우리 관세청 최대 규모 전자정부 수출국이자 K-라이스벨트 중점 협력국으로, 양국이 ICT, 보건, 농업*, 역량강화 등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,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.
- * 해외농업기술개발(KOPIA) 센터 관련 양국간 MOU 추진
- 디옹 은구트 총리는 2015년 카메룬 제1호 국립의료센터(CURY)에 이어 작년 카메룬 북부 내 최초 현대식 의료기관인 ‘가루아 종합병원’, 직업훈련소 건립 등 한국의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, 앞으로도 양국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.
 - 아울러, 카메룬측은 기니만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, 양 총리는 ‘기니만 해적 퇴치 그룹*’의 일원인 양국이 기니만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.
- * G7++Friends of the Gulf of Guinea: 2013년 G7 주도로 설립 / G7 및 주요 해운국, 기니만 연안국(카메룬 포함), 관련 국제기구·해운업계 등 참여
- 디옹 은구트 총리는 양국간 국방협력, 국방정보현대화 사업 등에 관심을 표명하였고, 양 총리는 국방협력 강화 기여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- 한편, 한 총리는 아프리카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카메룬 재외동포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의 발전과 한-카메룬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재외동포들의 노고를 평가하고,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-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카메룬 방문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최초 방문이며, 양국간 전자정부, 농업·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은 물론, 국제무대 협력까지 강화해나가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.
- 한 총리는 현지 시각 11.1(수) 밤 네 번째 순방지인 노르웨이로 이동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박영철 (044-200-2136)
		담당자	사무관	박철순 (044-200-2135)

